

소비자물가 두 달째 1%대... 채솟값 불안은 '여전'

호남통계청, 10월 소비자물가동향
2021년 1월 이후 3년9개월만 최저
석유·과일 '하락세' 물가 안정 견인
배추 광주 45.3%·전남 52.9% 올라

지난달 광주·전남지역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두 달 연속 1%대를 기록하며 둔화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석유류 물가가 1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하며 전체 물가를 끌어내린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김장철을 앞두고 채소류 물가가 높은 상승률을 유지하고 있는 데다가, 외식을 비롯한 서비스 물가가 상승하면서 소비자물가의 체감 물가는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또 석유류 가격 하락세 둔화, 국제정세 등의 요인으로 인해 물가 하락 추세를 단언하기는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5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10월 광주·전남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광주 지역 10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4.93(2020년=100)으로 전월대비 0.1%, 전년동월대비 1.3% 상승해 전월 1.6%보다 0.3%p 하락했다. 생활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2%, 전년동월대비 1.1% 각각 상승, 신선식품지수도 전월 대비 0.3% 상승, 전년동월대비 0.5% 하락하며 둔화 흐름을 보였으나, 품목별로 보면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가 전월 대비 10.1%, 전년 동월 대비 45.3% 증가하며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가중시켰다. 무는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79.2%, 상추는 전월 대비 12.5% 올랐다.

다만 석유류가 전년 동월 대비 11.3% 내린 가운데 경유가 16.7% 휘발유가 10.5% 등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며 전체 물가를 끌어내렸다. 그간 전체 물가를 견인했던 신선과실류도 하락세를 보였다. 신선과실

은 지난달보다 7.0%, 지난해 같은 달보다 11.7% 각각 하락했으며, 특히 과일류 물가를 끌어올렸던 사과가 17.5%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는 전월 대비 11.1%, 포도는 전년동월대비 8.1% 내려갔다.

품목성질별 동향을 보면 서비스는 전월 대비 0.1%, 전년동월대비 2.4% 각각 상승했다. 그 중 외식을 비롯한 개인 서비스 물가는 전월 대비 0.2%, 전년동월대비 3.3% 올랐다.

전남지역 10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5.64(2020년=100)로 전월 대비 0.0% 보합, 전년동월대비 1.3% 상승해 전월 1.7%보다 0.4%p 하락했다. 생활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2%, 전년동월대비 1.4% 각각 상승했으며 신선식품지수는 전월 대비 2.5% 하락, 전년동월대비 2.1% 각각 상승하는 등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다. 다만 전남지역 역시 신선채소는 전월 대비 2.3%, 전년동월대비

16.5% 각각 상승, 신선과실은 전월 대비 8.3%, 전년동월대비 9.3% 각각 하락하며 희비가 교차하는 모습이었다. 배추(52.9%), 상추(69.0%) 등이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큰 폭으로 상승했고 지난해 물가 상승을 견인했던 사과(-19.2%), 배(-16.4%) 등은 하락했다.

마찬가지로 석유류가 전년동월 대비 10.3% 내린 가운데 경유가 16.1% 휘발유가 10.7% 등으로 크게 하락했다. 다만 서비스는 전월 대비 0.4%, 전년동월대비 2.6% 각각 상승했다. 공공서비스는 전월 대비 0.5%, 전년동월대비 1.9% 각각 상승했으며 개인서비스는 전월 대비 0.3%, 전년동월대비 3.2% 각각 올랐다.

공미숙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10월 물가동향은 물가에 영향이 큰 석유류 가격이 크게 하락하고 과일 가격도 안정세를 보이면서 전체 물가 상승률이 하락했다"며 "이는 3년 9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이며 두 달 연속 1% 상승률을 기록한 것은 2021년 2~3월 이후로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석유류가 많이 떨어져 물가가 하락하고 있지만, 채소류와 석유류는 기상이변 및 국제정세 등 외부요인에 따라 변동 사항에 있어 추세를 단언하기는 어렵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특별한 외부 충격이 없다면 이달에도 2% 이내의 안정적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김장철을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여전히 체감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2차관은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11월 물가는 석유류 가격 하락세 둔화 등 상방 압력이 있겠으나, 특별한 외부 충격이 없다면 2% 이내의 물가 흐름이 지속될 전망"이라며 "김장철 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다운 기자

광주産 기아 '더 뉴 스포티지' 계약 돌입

3년만에 상품성 개선 모델

기아 오토랜드광주에서 생산하는 국내 준중형 SUV 판매 1위 스포티지가 한층 웅장해진 디자인과 강화된 상품성으로 돌아왔다.

기아는 5일 '더 뉴 스포티지(The new Sportage)'의 사양과 가격을 공개하고 본격적인 계약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더 뉴 스포티지는 지난 2021년 7월 출시 이후 많은 고객들의 사랑을 받은 5세대

스포츠지의 상품 경쟁력을 한층 강화해 3년만에 새롭게 선보이는 상품성 개선 모델이다.

더 뉴 스포티지는 기아의 최신 디자인 정체성을 반영해 신차 수준으로 내외장 디자인을 변경했으며, 1.6 가솔린 터보 모델에 8단 자동변속기를 탑재하고 하이브리드 모델에 특화 주행 기술을 적용하는 등 주행 성능을 더욱 높였다.

또 차량과 사용자 간의 연결성을 강화하는 SDV 기반의 첨단 인포테인먼트 사

양을 탑재하고, 고객 선호도가 높은 다양한 안전·편의 사양을 추가해 전반적인 상품성을 대폭 강화했다.

더 뉴 스포티지는 '역동적인 도심형 SUV'라는 기존 이미지를 계승하면서 감각적이고 하이테크한 디자인 요소를 적용해 한층 강인하고 미래적인 모습으로 거듭났다.

더 뉴 스포티지의 판매 가격은 1.6 가솔린 터보 모델은 2836만원, 2.0 LPi는 2901만원부터 각각 시작한다. 박소영 기자

중소조선연구원, 특수선박지원센터 준공

기술 성능·신뢰성 평가 지원 역할

중소조선연구원은 지난 4일 창원시 진해구에서 특수선박지원센터 준공식을 개최했다. 준공식에는 흥남표 창원시장, 유명현 경남도 산업국장,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 도·시의원, 조선업계 및 기자재 관련 인사 200여 명이 참석해 특수선박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출발을 기원했다.

특수선박지원센터는 다양한 조선 및 기

자재 관련 기업들이 특수선박 기술 성능 평가와 인증 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된 종합 지원 플랫폼이다. 이 센터는 산업통상자원부, 경남도, 창원시의 협력으로 2021년부터 조성돼 중소형 특수선박의 성능 고도화와 품질 보증을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됐다.

센터는 총 312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창원시 진해구 1만608.9㎡ 부지에 연구 지원동과 테스트베드동을 포함한

5448.71㎡ 규모로 조성됐으며, 다양한 28종의 첨단 시험장비를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선체 소재 특성 분석, 환경 시험, 성능 평가 등 특수선박의 성능과 신뢰성 검증을 지원하고, 국내외 조선사들이 특수선박의 품질을 높이는 데 필요한 인증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센터 설립으로 △무인 선박 시험 인증 시스템 △고속 진동 충격 평가 시스템 △내수성·내구성 환경 시험 장비(EMI/EMC) 등 최신 장비가 구축돼 민간 및 국방 분야에서 다양한 특수선박의 기술력을 강화하고 품질 인증 체계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최권범 기자



광주신세계, '가을 니트' 선보

광주신세계가 반짝 지나가는 가을을 즐길 수 있도록 플레이스팟에 위치한 '마리떼 프랑스와 저버'에서 다양한 니트 제품을 선보인다. 마리떼 프랑스와 저버는 프랑스 브랜드로 1990년대의 레트로 감성과 함께 MZ세대를 만족시킬 수 있는 디자인을 통해 폭넓은 고객층을 가지고 있는 브랜드다. 지난달 본관에 있던 '마리떼 프랑스와 저버'를 플레이스팟으로 옮겨 리뉴얼 오픈하고 다양한 제품으로 고객들을 맞이하고 있다.

광주신세계 제공

전일보

전일보는 전남일보가 제공하는 뉴스서비스입니다. 한발 빠르고 정확한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의견과 제보를 바랍니다.



노동 칼럼

A씨는 내년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를 두고 있다. 초등학교 저학년은 하교가 빨라, 부모의 도움이 더욱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걱정하고 있다. 아이 출산과 이어서 이미 육아휴직 1년은 모두 사용했기 때문이다. 남편이 아직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는데, 육아휴직은 무급이기 때문에 무척대고 사용하기에는 생계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런 A씨에게는 희소식이 있다.

지난 9월26일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고평법)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 육아휴직과 난임 치료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하나씩 살펴보자.

가장 큰 변화는 육아휴직 기간이 연장된다. 기존 1년에서 1년6개월까지 확대되는데, 추가되는 기간은 모든 노동자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부 또는 모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1년6개월 사용할 수 있으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1년만 가능하다.

이러한 육아휴직은 3회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분할 횟수도 커진다.(기존은 2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에도 변화가

있다.

가장 먼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의 연령이 확대된다. 기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늘어난다. 육아휴직 기간이 늘어나면서,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도 확대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1년이 원칙이지만,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하여 사용했다.

개정안 통과 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같지만,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않은 기간은 그 기간의 두 배를 가산한 기간 이내로 가산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연주
공인노무사

예를 들어 기존에는 육아휴직 6개월을 사용했다면, 근로시간 단축기는 1년6개월(육아휴직 미사용분 6개월+단축기 1년)

로 모두 2년을 사용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 시행 이후에는 근로시간 단축기는 2년(육아휴직 미사용분 6개월×2배+단축기 1년)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기존에는 최소 사용 단위가 3개월이었으나, 1개월로 짧아진다. 방학 중에만 사용하는 등 편리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사용할 수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육아휴직과 별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2019년 10월에 고평법을 개정하면서 생긴 제도인데, 그때 당시에는 법 시행 이후에 제도를 사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했다. 이번에 관련 부칙을 삭제하면서 2019년 10월 이전에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산하여 1년을 모두 사용한 노동자도 확대된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것은 부모 모두에게 힘들다. 정부의 지원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여, 현명하게 육아기를 보낼 수 있길 바란다.

본 개정안은 4개월 이후에 시행되어, 2025년 2월 23일부터 적용된다.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거든 언제든지 우리 센터로 연락주시라.

1588-6546